

코스피	코스닥
4010.41 (-32.42)	903.30 (+0.60)
금리 (한국예 9년)	환율 (원·달러)
2.633 (+0.013)	1438.10 (+6.40)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글로벌 CEO들의 숙소로 사용될 크루즈가 28일 경북 포항시 영일만항 부두에 정박해 있다. /뉴시스

對美투자 기싸움 팽팽 美 ‘압박’ vs 韓 ‘버티기’

한미 정상회담 D데이

양국 15% 관세 합의, 이전 여전
美 현금투자 요구 완화에 부담
李대통령 ‘韓, 日 아니다’ 선 그어
정상회담 ‘툭다운 딜’ 타결 주목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인 ‘정상외교 슈퍼워크’를 앞두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상 등 성과를 내기 위해 막판 협상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말레이시아에서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별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한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다.

양국은 상호관세를 15%로 정하고, 조선업 협력 등 대미 투자 3500억원(약 500조원)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 3500억원 투자를 두고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모양새다.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주요 참모진으로부터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협상, APEC 정상회의의 준비 등 주요 국정 관련 보고를 받으며 정상외교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9일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개막식에서 특별연설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경주 일정을 시작한다. 같은 날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일 정상회담은 30일 열릴 예정이다. 11월 1일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현재 미국은 전액 선불 현금 요구에서 한 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무리한 수준의 ‘현금’을 요구하고 있다. 분할투자 기간이나 수익 분배 문제도 얽혀 있어 타결에 이르기 어렵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7일) 말레이시아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에어포스원에서 ‘한국과 협상에 문제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

지 않는다. 잘 되고 있다”고 답했다. 동석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단지 해결해야 할 세부 사항이 많다. 매우 복잡한 합의고, (합의에) 매우 가깝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은 (현금 투자에 합의한) 일본이 아니다”라며 “한국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민주주의와 합리성 측면에서 우방이기 때문에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측이 우리나라를 ‘동맹국’으로 대우하며 합리적인 요구를 하라는 의미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급한 쪽은 미국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한을 계기로 협상을 끝내고 이를 성과로 내세우려는 게 의도를 드러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정상회담을 하고도 ‘노 딜’이라는 결과까지 감수하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그렇기에 APEC 정상회의의 계기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외교가의 시선이다. 다만 양 정상 간 ‘툭다운’ 방식으로 극적 타결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조선업 협력과 관련해 추가적인 제안을 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현금 투자 비중을 줄이기 위해 제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이미어 그리슨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은 이미 했던 것보다 더 크게 미국 조선업에 투자하려는 훌륭한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조선업에 대한 것으로, 우리는 조선업을 되살리는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통상 부문 협상이 잘 풀릴 경우 ‘한보·통상 패키지 딜’이 발표되고, 대미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엔 ‘한보 딜’만 발표하거나 아예 아무런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빈 살만 만난 정의선, 중동 생산기지 시동

사우디 생산법인 ‘HMMME’ 점검
산업 대전환 ‘비전2030’ 동행 선언
미래 에너지·스마트시티 협력 논의

정의선 현대차그룹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미래 모빌리티 협력에 속도를 내기 위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와 단독 면담을 진행했다. ‘비전 2030’을 내세운 사우디의 산업 대전환 전략과 현대차그룹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맞물리면서 미래 에너지·스마트시티 등 신사업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의선 회장은 27일(현지시간) 사우디 리야드 리츠칼튼 호텔에서 빈 살만 왕세자를 만나 자동차산업과 스마트시티, 미래에너지 분야 협력방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지난 2022년 왕세자의 방한 이후 세 번째지만 단독 회담은 이번이 처음이다. 빈 살만 왕세자는 제조업과 수소에너지 중심의 산업 다변화를 추진하는 국가 프로젝트 ‘비전 2030’을 주도하며 사우디를 중동 신산업 허브로 육성하고 있다.

정 회장은 “비전 2030의 목표에 공감하고 현대차그룹의 기술 역량을 통해 사우디의 ‘기가 프로젝트’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대차그룹이 사우디에 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오른쪽 두번째)이 HMMME 신공장 건설현장에서 직원들을 격려한 후 공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현대차

설 중인 ‘현대차 사우디 생산법인(HMMME·Hyundai Motor Manufacturing Middle East)’의 진행 상황을 보고 받고, 현지 맞춤형 설비를 적용한 특화 공장으로 완성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HMMME는 사우디 국부펀드(PIF)와 현대자동차가 공동 설립한 합작법인으로 지분비율은 PIF 70%, 현대차 30%다. 공장은 사우디 서부 홍해 연안의 킹 압둘라 경제도시(KAEC) 내 ‘킹 살만 자동차산업단지(King Salman Automotive Cluster)’에 들어선다. 중동 최초의 현대차 생산기지로 올해 5월 착공해 2026년 4분기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5만 대 규모로 내연기관차(ICE)와 전기차(EV)를 혼류 생산하며, 사막 기

후에 맞춘 냉방·방진 설비를 갖춘 현지 특화형 공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 회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킹 살만 자동차산업단지 내 HMMME 공장을 직접 찾아 공정 현황을 점검하고 임직원을 격려했다.

그는 “사우디 생산거점 구축은 현대차가 중동에서 내딛는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라며 “고객 기대를 뛰어넘는 품질과 적시 공급으로 글로벌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HMMME를 기반으로 브랜드 호감도와 공급 안정성을 높여 사우디 최대 자동차기업으로 도약한다는 전략이다. <3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최태원 “AI는 안보자산”… 자립·협력이 해법

2025 APEC CEO 서밋 부대행사
SK그룹 ‘퓨처테크포럼 AI’ 개막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인공지능(AI)을 ‘국가 안보자산’으로 규정하면서 한국형 AI 발전모델의 양축으로 기술자립과 ‘신뢰 기반 협력’을 제시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AI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의 전략적 방향을 구체화한 발언으로 평가된다.

SK그룹은 28일 경북 경주시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AI 시대의 도전과 기회, 국가 AI 생태계 전략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퓨처테크포럼 AI’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부대행사로 미국·싱가포르·베트남 등 주요국 정부 및 기업, 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최 회장은 “AI 생태계 구축(Building an AI Ecosystem)”을 주제로 한 환영사에서 “이제 AI를 빼고는 비즈니스 화제가 없다”며 “AI는 국가의 성장엔진이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8일 경북 경주엑스포대공원 문화센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 ‘퓨처테크포럼: AI’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자 안보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OpenAI의 ‘ChatGPT’를 ‘AI 쇼크(충격)’로 칭하며 글로벌 강대국들이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신의 기술을 전 세계에 확산하는 전략 경쟁에 나선 동향을 소개했다.

최 회장은 AI를 하는지, 하지 않는지에 따라 개인, 기업, 국가 간의 격차가

점점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마다 AI 해법이 다른 가운데 한국의 사례로 민관 협력 기반 AI 컴퓨팅 인프라 구축,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등의 ‘기술자립’, 글로벌 AI 기업과의 ‘신뢰 기반 협력’을 중요하게 꼽았다.

그는 “한국은 민관이 협력하는 AI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하는 등 기술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동시에 글로벌 기업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해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빠른 적응력과 혁신 역량을 갖춘 테스트베드”라며 “병목현상을 해소하고 AI 확산 속도를 가장 앞당길 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SK그룹은 이날 ‘K테크 쇼케이스’를 통해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선보이며, 그룹 차원의 인프라 역량을 공개했다. SK텔레콤, SK하이닉스, SKC, SK엔투브 등이 참여해 반도체·냉각·보안 등 핵심 기술을 전시했다.

/이승용 기자



▲송미령 “美 쌀·대두 수입 확대 불가능… 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선정 검토”
▲김 총리, 해양수산부 부산청사 점검… “직원 보육 등 지원 중요” /사진 뉴시스

▲감사원 “정부 업무평가 부실 운영… 평가기준 임의 변경해 구조조정서 제외”
▲가리봉 2구역 찾은 오세훈 시장 “신통기획2.0으로 주택시장 안정 이뤄 나갈 것”

▲이 대통령, 트럼프 방한 선물로 ‘경주 금관 모형’ 선물
▲與 “‘李 재판중지법’ 현재로선 개인 의견 수준… 사법부 태도에 달려”